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고찰

장애라 · 채현석 · 유영모 · 함준상 · 정석근 · 이승규 · 안종남 · 김동훈 · 이성기¹ · 이의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¹강원대학교 동물식품응용과학과

A Study on the Health Benefits Labeling for Livestock Products

Aera Jang, Hyun-Seok Chae, Young-Mo Yoo, Jun-Sang Ham, Seok-Geun Jeong, Seung-Gyu Lee,
Chong-Nam Ahn, Dong-Hoon Kim, Sung-Ki Lee¹, and Eui-Soo Le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Suwon 441-706, Korea

¹Department of Animal Products and Food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Abstract

This article concerns the labeling guideline for health benefits of livestock products. In recent years, livestock products with health benefits have emerged as a key market for livestock product industries. However, the current labeling regulation for functional foods severely prohibits livestock product industries from attaching most of the health benefits claims to the products. Also, manufacturers have some difficulties in labeling the health benefits of certain livestock products because of a lack of guidelines on health benefit claims for livestock products. Therefore, some livestock product industries and scientists have strongly demanded a revision of labeling regulation, Appended Chart No. 14 provided by Article 52 (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ct, so they could mark the health benefits on their products. To support the 'revision of labeling regulation', the goals of this article were as follows; 1)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on nutrition labeling and nutrition claims on foods, 2) to determine the current situation on health claim regulatory systems used in foreign countries (CODEX, USA, Japan, EU, and Australia/New Zealand), 3)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health claim or health benefit claim regulations for functional foods, conventional foods, and livestock products in Korea, and 4) to determine the need for complement in health benefit claim for livestock products. In conclusion, guidelines for the use of health benefit claims on livestock products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guidelines should be viable and easy for manufacturers and control authorities to understand. Also, nutrient profiles should be developed to identify whether the livestock products are eligible to bear health benefit claims and to help consumers make the right choices.

Key words : livestock products, health benefit, nutrient profiles, Appended Chart No. 14, Enforcement Role of the Processing of Livestock Products Act

서 론

국민소득의 증대와 소비자의 웰빙(well-being) 추구 등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 건강관련 정보 표시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처음 대면하는 것은 식품의 품질이나 맛이 아닌 제품의 표시사항들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표시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주로 안전성 여

부를 확인하고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주 등, 2005). 따라서 식품의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유용성 표시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하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가공처리 법령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축산 식품에 대해 제품명, 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등의 일반적인 표시사항과 그 표시방법을 상세히 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확한

*Corresponding author : Eui-Soo Le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Suwon 441-706, Korea. Tel: 82-31-290-1688, Fax: 82-31-290-1697, E-mail: eslee68@konkuk.ac.kr (present address : R&D center, Chicken University, Icheon 467-813, Korea.)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8).

한편, 고급화, 다양화되는 소비성향과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건강과 영양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일반식품과는 차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개발·생산되어 그 유용성을 표시 및 광고할 수 있게 되었다(Lee, 2007). 이와 더불어 기능성을 표방하는 축산물(유제품, 계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가공제품 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축산물에 있어서는 유용성 표시와 관련된 제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기능성을 표방하는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나 축산농가의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을 내세우는 축산물의 유용성 표현에 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소비자들은 무분별하고 과장된 정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Park(2007)은 기능성 유제품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한 축산물 중 유제품의 기능성 표시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는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 축산물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 기능성 성분을 가진 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기업체 및 축산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적절치 못한 유용성 표시 및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여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식품의 건강강조를 포함한 기능성 표시 확대에 대한 국제적인 현황과 축산물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및 축산물에 적용되는 기능성 또는 유용성 표시와 관련 법령의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기능성 표시기준의 동향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축산물의 표시 관련 법규 및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양성분 및 영양강조표시 현황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관련 법령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비롯,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이중 축산물의 관리 법령인 「축산물가공처리법」(2008)은 총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고시와 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서는 축산물을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 10종 16품목), 원유 및 유가공품(우유, 발효유, 치즈 등 20종 73품목)과 식용란 및 알가공품(전란액 등 9종 9품목) 등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이, 2008). 특히,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축

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이 기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시되면서 일반식품에 대한 영양성분표시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식품의 영양성분표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일반식품 및 축산물에서도 많은 가공제품들이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축산물의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에게 영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며,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에게 제품의 영양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국민 영양교육도구로써 국가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Chung *et al.*, 2001; Oh and Jang, 2004; Silverglade, 1996). 이에 따라서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영양표시가 소비자에게 오도되지 않고 정확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합리적 영양표시 제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에 영양표시교육법(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NLEA)을 제정하여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100 g 또는 1인분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식생활에 대한 권장사항(dietary recommendation)에 근거하여 영양소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 모든 가공식품에 14종의 영양성분(열량, 지방유래 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탄수화물, 식이섬유소,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을 표시하고 각 성분은 1일 권장량에 대한 비율 및 1일 섭취 칼로리별 영양소의 권장량에 준하여 계산된 수치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축산물의 경우, 표시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품명, 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영양성분(열량, 총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등이며, 2008년 12월 현재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있는 대상축산물은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 분유류와 식육가공품 중 소시지류 및 영양표시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로 되어있다. 2008년 12월에 개정된 「축산물표시기준」(제 2008-36호)에 의하면 이러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축산물은 의무적으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열량, 당류,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하고 있다. 기타 영양소기준치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를

하는 때에도 당해 영양소의 명칭, 함량 및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8).

영양강조 표시는 표시기준에서 제시하는 분류기준에 의하여 영양소 함량강조표시(절대강조표시)와 영양소 비교강조표시로 분류할 수 있다. 영양소 함량강조표시는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무○○, 저○○, 고○○(또는 풍부), ○○함유(또는 급원) 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양소 비교강조표시는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한 것이다. 영양소의 함량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및 다량 영양소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미량영양소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또한 “덜, 라이트, 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값이 함량강조표시의 규정에 의한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함량강조표시의 규정에 의한 “함유”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한다. “무, 저, 고, 풍부, 강화” 등과 같은 강조표시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쉽고 단순하게 전달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주었을 경우 영양표시가 된 식품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Schucker *et al.*, 1992). 그러나 영양강조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충분한 영양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잘못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인 기준의 설정과 함께 지속적인 소비자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축산물에 대한 영양성분 및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은 축산물을 구입할 때 영양성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정확한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적절한 식품선택 기회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Cho *et al.*, 2007). 축산물의 경우 일반식품에 비하여 영양표시 수준이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물론 소비자, 학계 및 업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 도모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기준은 국제기준 및 국내 식품관련법령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표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제 기능성표시 관련현황

일반적으로 식품은 영양소와 에너지의 공급물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체내의 여러 대사기능에 관여하여 질병예방과 치료 그리고 생체리듬의 조절 및 균형을 유지시키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식품이 지니고 있는 기능성은 생명유지의 기능인 영양기능과 건강기능 그리고 관능적 기능인 감각기능이 있다. 식품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식품과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의 기능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Health Claim(건강강조표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식품의 건강강조표시는 식품의 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이 있는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odex지침에 따르면, 건강강조표시에는 영양소기능강조표시, 기타기능(생리기능)강조표시, 질병위험감소강조표시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영양소기능강조표시는 신체의 성장, 발달, 정상적인 기능에 있어서 영양소의 생리적 역할에 대한 표시이고, 기타기능강조표시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섭취로 인한 건강기능 개선, 조절, 유지에 관한 표시이다. 또한 질병위험감소표시는 식품 또는 식품성분의 섭취와 질병(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이에 관한 관계를 나타낸 표시이다(CODEX, 2004). 이러한 식품의 건강강조표시는 각국의 실정에 따라 표시 기준이 다양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WHO의 보고(2004)에 따르면 조사대상 74개국 중 35개국은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7개국은 특정 질병위험감소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30개국은 건강강조표시에서 질병에 관련된 표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22개국은 영양소기능강조표시와 기타기능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양소기능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국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유럽 및 CODEX에서는 빠른 속도로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CODEX가 산하 표시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Labeling)를 통해 1980년대 말부터 「영양 및 건강정보표시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의 제정을 논의해온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 1990년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일본이 1991년 「영양개선법」으로 기능성 표시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법체계 정립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왔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능성 표시 규제의 법제화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는 경향은 기능성 표시를 점차 모든 식품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객관적인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기능성 정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접근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CODEX

CODEX 산하 표시분과위원회는 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적절한 과학적 입증에 기초하여야 하고, 증명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자료 평가방식에 따라 대표적인 효과를 증명할 정도로 충분하여야 하며, 새로운 지식이 활용 가능할 때에는 과학적 증명은 지속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기능정보 표시를 Health Claim이라 칭하고 세부적으로 Nutrient function claim, Other function claim, 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으로 분류하고 있다(CODEX, 2004).

2004년 개정된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사용에 관한 지침에서 건강강조표시는 영양정책을 포함한 국가보건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여야 하며, 그 표시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건전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로써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건강에 유익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직하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찰당국은 건강강조표시가 소비자의 섭취 행태 및 식이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는 어떤 식품이 비타민과 무기질의 함량뿐만 아니라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함량을 포함하여 특별한 영양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서술, 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영양소함량강조표시(Nutrient content claim)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수준을 표현하는 영양강조표시이다(예: “칼슘급원”, “고섬유소”, “저지방”). 영양소비교강조표시(Nutrient comparative claim)는 둘 이상의 식품에서 영양소 수준이나 열량을 비교하는 강조표시이다(예: “감소”, “미만”, “덜”, “증가”, “초과”).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는 어떤 식품 또는 식품의 성분과 건강간의 관련성을 서술하거나 연상케 하거나 암시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한다. 건강강조표시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는 반드시 현재의 관련 과학적 사실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며, 근거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평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서 표시된 효과 및 건강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강조 표시된 효과는 건강한 식생활을 통하여 식품 혹은 식품 성분의 적절한 양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나야 한다. 건강강조표시에는 질병의 위해 혹은 건강 관련 유해효과를 증가시키는 함량의 영양소 또는 영양성분을 포함하는 식품들에 대한 강조표시를 금지하기 위하여 특정 강조표시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부적합 또는 적합 조건

에 대한 명확한 규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강조 표시된 효과가 해당 식품의 구성성분에 기인하는 경우, 그 표시의 근거가 되는 식품 성분을 정량화할 수 있는 검증된 측정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CODEX, 2004). 또한 영양 또는 건강강조표시가 있는 식품은, 영양표시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표지에 영양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건강강조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영양소기능강조표시(Nutrient function claim)는 신체의 성장, 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해당 영양소의 생리학적 역할을 나타내는 영양강조표시이다. 둘째, 기타기능강조표시(Other function claims)는 총 식이 중 식품 혹은 식품의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 또는 생물학적 활동에 미치는 특정한 영양에 관한 강조표시이다. 이러한 강조표시는 건강상 긍정적인 기여 또는 기능 개선 또는 건강 개선이나 건강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셋째, 질병위험감소 강조표시(Reduction of disease risk claims)는 총 식이 중 식품 혹은 식품의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질병 발생 혹은 건강과 관련한 상태의 위해 감소와 관련된 표시이다. 위해 감소는 질병이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위해 인자들을 현격히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질병은 복합적인 위해 인자를 가지며, 이러한 위해 인자들 중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위해 감소 강조표시는 소비자들이 예방강조표시(Prevention Claims)로써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표시되어야 한다(CODEX, 2004).

미국

미국의 Health Claim 제도는 유럽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말하는 Health Claim 제도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 미국은 유럽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의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Health Claim으로 분류하고, 영양소기능표시와 영양소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Structure/function claim으로 분류하고 있다(Kim and Kwon, 2007).

미국은 1990년에 「영양표시교육법(NLEA)」을 제정함으로써 건강강조표시를 도입하였고, 현재 「영양표시교육법」과 「식이보충제 건강교육법(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DSHEA)」, 「FDA현대화법(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FDAMA)」를 바탕으로 건강강조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DA가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영양표시교육법에서 공인된 건강강조표시를 SSA(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에 근거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FDA의 매우 엄격한 심의를 거친다. 둘째, 1997년 FDA현대화법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또는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 등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정한 Health Claim을 사용하고자 할 때 청원자는 관련 자료를 FDA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FDA가 1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FDA가 2003년에 발표한 「영양증진을 위한 소비자 건강정보 발의(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Better Nutrition Initiative)」에 근거하여 제한적 건강강조표시(Qualified Health Claims)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제한적 건강강조표시의 허용 기준은 공인된 건강강조표시보다 완화된 것으로 FDA가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의 강도가 낮으나, 표시 내용이 정확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FDA, 2003). 2007년 4월까지 FDA에서 허용한 제한적 건강강조표시는 토마토, 칼슘, 녹차, 셀레늄, 항산화비타민과 암(cancer), 엽산, 비타민 B₆, 비타민 B₁₂, 오메가3 지방산, 옥수수유, 카놀라유의 불포화지방산, 올리브유의 단일불포화지방산과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포스파티딜세린과 인식력장애 및 치매(cognitive dysfunction and dementia), 크롬피콜린산과 당뇨병(diabetes), 칼슘과 고혈압(hypertension), 엽산과 신경관계 결함(neural tube defects)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FDA, 2007).

축산물과 관련한 건강강조표시로는 2010년 1월부터 칼슘 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강화된 무지방과 저지방 우유에 칼슘과 골다공증 또는 칼슘 및 비타민 D와 골다공증 관련 Health Claim의 사용이 허용될 예정에 있다(FDA, 2008a). 이처럼 미국은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반식품에서도 건강강조표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 과정에서 과학적이면서도 충분한 검토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건강강조표시관련 근거법률들은 그 명칭에 교육(education)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표시를 소비자 교육이라는 관점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주목할 점은 건강강조표시는 미국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식사관련 질병이나 건강관련 위험을 증가시킬 정도의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총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이 일정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건강강조표시를 할 수 없다. 또한, 식이 보충제를 제외하고 일반식품에서 건강정보표시는 6가지 영양성분 즉, 비타민 A, 비타민C, 철분, 칼슘, 단백질, 식이섬유 중 하나가 일일 섭취 권장량의 10% 이상 들어있어야만 표시할 수 있다(FDA, 2008b).

일본

일본은 기능성 식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기부터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1991년에 「특정보건용 식품(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 FOSHU)」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가 인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영양기능식품(Food with Nutrient Function Claims, FNFC)」 제도가 신설되면서 영양기능식품과 특정보건용 식품을 통틀어 「보건기능식품(Food with Health Claim)」 제도로 정비되었다(Yamada *et al.*, 2008).

보건기능식품제도의 대상 식품은 특정보건용 식품(FOSHU)과 영양기능식품(FNFC)으로 나뉘며, 특정보건용 식품은 신체의 생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기능 성분을 함유하여 건강유지·증진 및 특정보건용도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기능에 대한 표시의 유용성 및 안전성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에 판매가 가능한 개별허가형이다. 이에 비해 영양기능식품은 신체의 건전한 성장, 발달,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성분, 즉 단백질,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국가에서 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고시형이다.

영양기능식품은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이 인정한 12종류의 비타민(Niacin, Pantothenic acid, Biotin, Vitamin A, Thiamin, Riboflavin, Vitamin B₆, Vitamin B₁₂, Vitamin C, Vitamin D, Vitamin E, Folic acid)과 5종류의 무기질(Zinc, Calcium, Iron, Copper, Magnesium)에 대하여 영양소기능표시를 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기준을 충족하면 사전승인이나 통보 없이 영양소기능표시를 사용 할 수 있다. 일본에서 Tokuhoko로 더 잘 알려진 특정보건용 식품(FOSHU)은 특정한 건강효과를 얻기 위해 ‘기능성’ 성분을 추가한 식품으로, 영양소 기능 외에도 다른 식품성분에 의한 인체생리기능, 건강 유지 및 촉진, 건강관련 조건 개선기능 등 신체의 구조/기능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위험저감효과표시를 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칼슘과 엽산을 포함한 식품과 관련해서만 질병위험감소표시가 허가되어 있다. FOSHU에 대한 건강강조표시는 위장개선, 혈압, 혈청 콜레스테롤, 혈당, 미네랄흡수, 혈액 내 중성지방, 치아건강, 뼈 건강 관련 등 8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건강 효과를 표시하려면 후생노동성에 의해 건강증진 법에 근거하여 검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Yamada *et al.*, 2008). 2008년 10월 현재 799개 품목이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이중 축산물 관련제품으로는 발효유제품 57개 품목, 유산균음료 32개 품목, 유음료류 5개 품목, 소시지류 7개 품목, 햄류 1개 품목, 햄버거 2개 품목, 고기완자(미트볼) 2개 품목 등이며 유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HLW, 2008).

일본은 2005년부터 특정보건용 식품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식품기능 표시의 과학적 근거가 현재 심사 기준에 미달되어도 일정한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면 효과의 근거가 확립되지 않음

의 표시를 붙이는 조건하에 ‘신체의 구조/기능표시’를 허가하는 「조건부 특정보건용 식품제도(Qualified FOSHU)」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특정보건용 식품은 특정보건용 식품, 질병위험감소 FOSHU, 규격기준형 FOSHU, 조건부 FOSHU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국제적 동향에 따라 식품에 대한 영양소 프로파일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EU

현재 건강강조표시제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유럽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2003년 7월 건강정보표시 법규를 처음 제정해 2006년 12월에 「식품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 규칙(Regul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No. 1924/2006)」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2007년 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EC, 2006). 이로써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가 및 몇몇 관련국가들은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는 일반적인 법안을 갖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영양 및 건강강조표시제도는 모든 일반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제출된 과학적 근거자료를 유럽식품 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서 검토하고 유럽연합위원회(EC)에서 인정해야만 그 건강강조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강조표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EFSA가 각 회원국에서 제출한 기능성 표시에 대한 기준을 심의하여 2010년 1월까지 허용된 건강강조표시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이러한 건강강조표시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영양소 프로파일이다. 유럽연합위원회는 2009년까지 영양소 프로파일 기준을 EFSA 자문과 이해단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C에서 영양소 프로파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의 역할 때문이다. 즉, 영양소 프로파일이 적합하지 못한 식품에는 건강강조표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다. EC는 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포함 성분이 모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 · 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 식품안전기구(Food Safety Australia New Zealand, FSANZ)는 2004년에 「영양 · 건강관련강조표시 기준초안(Draft standard for the regulation of nutrition, health and related claim)」을 제정해 2008년 4월에 최종 결정하였다(FSANZ, 2008). 식품의 Nutrition Content Claims와 Health Claim에 있어서 영양소함량강조표시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 수준을 표현하는 영양강조표시이며(예 “칼슘 함유”), 건강강조표시는 식품과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효과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일반수준의 건강강조표시(예 “칼슘함유~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와 높은 수준의 건강강조표시로 나뉜다(예 “칼슘함유~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 현재 영양소함량강조표시나 일반수준의 건강강조표시는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정에 의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높은 수준의 건강강조표시는 FSANZ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건강강조표시와 몇몇 일반수준의 건강정보표시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잉 섭취시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양소 섭취를 증가시키는 식품에는 건강정보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영양소 프로파일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호주는 영양소프로파일을 적용할 때에 위험증가영양소(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당)에서 위험감소영양소(과일, 채소, 견과류, 채소류, 식이 섬유소, 단백질)를 차감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료, 식용유 · 식용유 스프레드 · 치즈 · 마가린 · 버터, 기타식품 등 3가지로 분류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FSANZ, 2008).

국내 기능성 또는 유용성 표시관련 현황

우리나라는 일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에 기능성 또는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만 ‘기능성 표시’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표시 유형이 허용되고 있으며, 일반식품이나 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용성 표시’라는 이름으로 영양소기능강조표시 및 기타기능강조표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용성표시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표시 내용에 대한 심의와 규제조항도 미비하여 사업자의 유용성표시에 대한 오남용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축산물에 있어서 유용성 표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유용성 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Park, 2007; 박, 2007; 이, 2008).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는 각국의 식생활, 식습관, 영양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2002년 8월 26일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8월 27일에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02).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

로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a).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미리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과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영업자가 기준 및 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 받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기능성 표시를 하기 위한 요건 중 중요한 것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제품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과학적 자료로 인정된 것으로서 표시된 기능성의 효과 및 건강과의 관련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08-36호)」에 따라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 향상 또는 건강 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소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해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유형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거시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관련법 체계에서는, 식품 중 오로지 「건

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식품이나 축산물의 경우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고, 단지 영양소함량강조표시나 영양소비강조표시와 같은 영양강조표시(nutrition claim)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일반식품이나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2006년 12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예외 규정으로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과 작용 등 일반식품의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6),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및 내용과 관련된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 과정은 표 1과 같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표 2와 같이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일부 식품들은 유용성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

축산물은 2004년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4]에 의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와 유사한 규정을 통해 유용성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농림부, 2004),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및 내용과 관련된 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 과정은 표 3과 같다. 그러나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는 식품표시의 기본 법률인 「식품위생법」보다 앞서 개정되어 그 형평성에 논란이 되어 왔으며,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내용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비하여 그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식품 및 축산물의 유용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에 비해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의·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축산물 유용성 표시 보완 필요성

만일 식품에 일정한 건강에 대한 유용성을 갖는 성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으나, 2008년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됨에 따라 일반식

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8.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70호, 2004.1.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06.12.29, 일부개정>
1. 적용대상식품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1. 적용대상식품 특수영양식품	1. 삭제<2006.12.29>
2. 표시 및 광고(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2. 표시 및 광고(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2. 삭제<2006.12.29>
가. 유용성 (1)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인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가. 유용성 (1) 삭제 <2004.1.31>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식품영양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압 등 특정질환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 유아식, 환자식 등) (2)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 유아식, 환자식 등) (2)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2)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다. 섭취방법·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다. 섭취방법·섭취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라.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기타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품이나 축산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a). 그러나 일반식품이나 축산물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 등

을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일반식품이나 축산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안전성 관련 자료로는 섭취근거 및 섭취량 평가자료, 영양평가자료, 생물학적 유용성 자료, 해당기능성분 관련 물

표 2.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 · 광고 인정범위 지침

1. 유용성

◆ 공통 사항

- 해당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 등 유용성 표시를 함에 따른 과학적 ·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함
- ‘합유’, ‘풍부’, ‘강화’ 및 ‘더’ 등의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가능함
-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대한 표현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영양성분에 한하며, 이에 대한 기능 및 작용은 건강 기능식품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 범위내의 수준으로 표현하도록 함
-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은 SCI급 전문과학지에 발표한 논문 등을 참고하되 그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함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식품”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식품”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규칙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껌”에는 충치예방(치아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이 ○○mg 들어있습니다. (충치예방 표현은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류에 한함)
- (2) 건강유지 · 건강증진 · 체력유지 · 체질개선 · 식이요법 ·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식품”은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른 규칙적인 섭취를 할 경우 건강유지(건강증진, 체력유지,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식품”은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균형된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식품”에는 비타민 A와 E가 풍부하여 지용성 비타민 섭취에 도움을 줍니다. (100g당 비타민 A ○○mg, 비타민 E ○○mg 함량)
- (3)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환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특수용도식품”인 ○○는 임신수유기 영양보급에 좋습니다.
 - “특수용도식품”인 ○○는 노약자 영양보급에 좋습니다.
 -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만들어진 ○○는 환자에 대한 영양보급에 좋습니다.
-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식품”에는 비타민 A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100g당 비타민 A ○○mg 함량)
 - “○○식품”에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합니다. (100g당 비타민 B군 ○○mg 함량)
 - “○○식품”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철분의 흡수에 필요합니다. (100g당 비타민 C ○○mg 함량)
 - “○○식품”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와 이용에 필요합니다. (100g당 비타민 D ○○mg 함량)
 - “○○식품”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0g당 비타민 E ○○mg 함량)
-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 “○○식품”에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100g당 칼슘 ○○mg 함량)
 - “○○식품”에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치아 형성에 필요합니다. (100mL당 칼슘 ○○mg 함량)
- (4)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유사 표현
 -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100g당 식이섬유 ○○mg 함량)
 - 등푸른 생선인 ○○(참치, 고등어, 꽂치 등)에는 오메가-3지방산인 DHA와 EPA가 들어있어 영양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0g당 DHA ○○mg, EPA ○○mg 함량)
 - 검은깨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작용을 돕는데 필요합니다. (100g당 비타민E ○○mg 함량)
 - “○○식품”에는 천연 토코페롤을 ○○% 첨가하였습니다. 토코페롤은 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
 - “○○식품”에는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체내에서 산소운반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합니다. (100g당 철분 ○○mg 함량)
 - “○○식품”에는 철이 들어있습니다. 철은 혈액생성에 필요합니다. (100g당 철 ○○mg 함량)
 - “○○당근쥬스”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100g당 베타카로틴 ○○mg 함량)
 - 식물성유지인 “○○식품”에는 토코페롤이 들어있습니다. 토코페롤은 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합니다. (100mL당 토코페롤 ○○mg 함량)

2. 용도 :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표현

- (1)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임
- (2)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임
 - “○○전복죽”은 노약자들의 영양보급용
 - “가물치(통조림) 또는 잉어(통조림)”은 산후 영양보급용
 - “○○호박죽”은 산후조리나 임신부 영양보급용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표현

-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자료, 인체적용시험자료, 독성시험자료,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능성과 관련된 자료로는 기능성 내용, 과학적인 기능성 근거자료 등이 요구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심의를 위한 자료들은 의약품 수준의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이나 영업신고로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처럼 대형판매처나 일반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유용성을 가진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일부 유제품 및 육제품을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판매장소가 한정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축산물이 갖는 유용성의 표시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 문제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의 규정을 구체화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은 [별표 14]에 제시된 내용의 표시·광고는 이를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4]의 내용이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규정만 놓고 본다면, 축산물에 대해서도 [별표 14]에 규정된 내용의 유용성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별표 14]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1) 신체조작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 즉, 유용성 표시 부분을 구체화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표 3.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별표 1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관련)

<농림부령 1373호, 2000.12.11, 일부개정>	<농림부령 제1478호, 2004.8.4, 일부개정>	<농림부령 제1539호, 2006.10.4, 일부개정>
1. 적용대상 축산물 식육추출가공품	1. 삭제 <2004.8.4>	1. 삭제 <2004.8.4>
2. 표시(가공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표시(가공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표시(축산물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고(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작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가. 유용성 (1) 신체조작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가. 유용성 (1) 신체조작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 : 건강유지·건강증진·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 : 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 영양성분의 영양학적 기능·작용에 대한 표현(예시 : 비타민·칼슘·철·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 유아식·환자식 등) (2)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예시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 유아식·환자식 등) (2)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예시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나. 용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용도에 따른 표시·표현(예시 : 유아식·환자식 등) (2) 특정질환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내용의 표현(예시 : 발육기·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노화기에 좋다 등)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 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다. 용법·용량 제품의 성질상 섭취방법과 섭취량을 표현하여야 할 경우 해당제품의 영양학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및 섭취량

이 2004년 8월에 개정된 [별표 14]에는 그 적용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자세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 가능한 유용성 표시의 범위에 관하여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를 할 때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중 또 한가지는 유용성 표시와 관련된 [별표 14]의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하여 법률 제18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 제26조(유사표시 등의 금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에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인 기능 및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는 [별표 14]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에 관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축산물에 관한 유용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별표 14]에 의하여 규제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12월 11일자 [별표 14]에는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의 적용대상 축산물로 식육추출가공품에 한하여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였다(농림부, 2000). 그런데 2003년 8월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식품 중 일부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범주화하고, 이에 대해서 일정한 심의를 통과한 후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4일에 개정된 [별표 14]는 오히려 적용대상 축산물 조항을 삭제 함으로써 모든 축산가공품에 대하여 유용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농림부, 2004), 2006년 10월 4일에 개정된 내용에는 가공품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농림부, 2006).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행정당국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와

관련된 내용인 [별표 14]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Cho(2007)는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와 관련한 보고에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식품은 「식품위생법」이 규율하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사항을 규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행정입법으로 해석한 바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성분을 함유한 축산물을 생산하려는 업체들은 [별표 14]에 의해 유용성 표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별표 14]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유용성 표시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들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요건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와 관련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4]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유용성 관련 표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다 합리적 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축산물 유용성 표시 보안을 위한 영양소 프로파일링

건강기능식품에서의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아직까지 일반식품이나 축산물에서 사용되는 유용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기능성과 유사한 뜻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용성을 가진 축산물에 대한 정의는 대략,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성분을 함유한 축산물로써 건강증진 및 유지 또는 질병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축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물의 유효성 표시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영양소 프로파일링(Nutrient profiling)방법을 통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의 전체적인 영양소 프로파일링이 선행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양소 프로파일링은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평가하고, 영양강조 또는 건강강조 표시를 하기에 적당한 식품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현재 몇몇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양소 프로파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호주와 유럽에서는 영양소 프로파일의 결과를 이용하여 건강강조

표시의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다(Verhagen and van dem Berg, 2008).

국내의 경우, 2008년에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이 전체식품으로 바뀌면서 영양소 프로파일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가공품들에 대한 영양소 프로파일의 검토 결과 전체적으로 발효유제품들은 총당의 함량이 다소 높은 편이며, 치즈는 지방, 포화지방산, 나트륨의 함량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Sung, 2008). 또한 현재 지방 및 소금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대부분의 육제품은 총지방, 콜레스테롤 및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 과다한 섭취를 권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성분을 함유한 축산물에 대하여 유용성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식습관 등을 고려한 국내 실정에 맞는 영양소 프로파일링방법과 기준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업계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정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갈 때 축산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업계,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주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것은 국가와 관련산업체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모든 식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의 축산물에 대한 유용성표시 역시 국제적인 추세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축산물에 대하여 적절한 유용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특정성분의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유용성 표시를 위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14]는 축산물의 유용성을 적절히 표시하기에는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고시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축산물에 대한 적절한 영양소 프로파일링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의 효율적인 심의 및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인력 및 예산 지원과 함께 관리권한 강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물의 유용성 표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

및 관리제도 마련과 적절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진다면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Cho, H. S. (2007) Health claims of health-functional food and freedom of expression. *Environ. Law Rev.* **29**, 391-466.
2. Cho, S. H., Seong, P. N., Park, B. Y., Kim, J. H., Park, E. H., Ha, K. H., Lee, J. M., and Kim, D. H. (2007) Non-meat ingredient, nutritional composition and labeling of domestic processed meat products.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7**, 179-184.
3. Chung, H. R., Jang, Y. A., Cho, Y. H., and Lee, H. J. (2001) Study for better nutrition labeling system in Korea.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Paper.
4. CODEX (2004) Guidelines for Use of Nutrition and Health Claims, CODEX CAC/GL 23-1997 (Rev. 1-2004).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World Health Organization.
5. EC (2006) Regulation (EC) No 1924/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December 2006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Made on Food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404**, 9-25.
6. FDA (2003) Interim Procedures for Qualified Health Claims in the Labeling of Conventional Human Food and Human Dietary Supplements, Guidance for Industry and FD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DA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7. FDA (2007) Qualified Health Claims Subject to Enforcement Discretion. <http://www.cfsan.fda.gov/~dms/qhc-sum.html> (accessed on January, 16, 2009).
8. FDA (2008a) Final Rule: 21 CFR §101 [Docket No. FDA-2004-P-0205] Food Labeling: Health Claims; Calcium and Osteoporosis, and Calcium, Vitamin D, and Osteoporosis (2008. 09. 29) [Federal Register: September 29, 2008 (Volume 73, Number 189)] [Page 56477-56487]
9. FDA (2008b) A Food Labeling Guide, Appendix C: Health Claims, Guidance for Industry,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http://www.cfsan.fda.gov/~dms/flg-6c.html> (accessed on January, 08, 2009)
10. FSANZ (2008) Proposal P293-Nutrition, health & related claims, Final assessment report-11 April 2008. <http://www.foodstandards.gov.au/standardsdevelopment/proposals/proposalp293nutritionhealthandrelatedclaims/index.cfm> (accessed on 11 December 2008).
11. Kim, J. S. and Kwon, O. R. (2007) Health functional foods, What do you think about them? *Food Science and Industry*. **40**, 3-10.
12. Lee, S. Y. (2007) Trends and prospect in market of health functional food. *Food Science and Industry*. **40**(2), 16-20.
13. MHLW (2008) Food for Specified Health Uses(FOSHU).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hokenkinou/hyouziseido-1.html> (accessed on December, 28,

- 2008)
14. Oh, S. I. and Jang, Y. A. (2004) A study on nutrition composition labeling and nutrition claim practices for the processed foods. *Korean J. Food Cookery Sci.* **20**, 100-111.
 15. Park, K. H. (2007) Amendment scheme of labeling regulation for functionality of dairy products. *Korean J. Dairy Sci. & Technol.* **25**, 47-54.
 16. Schucker, R. E., Levy, A., Tenny, T. E., and Mathews, O. (1992) Nutrition shelf-labeling and consumer purchase behavior. *J. Nutr. Educ.* **24**, 75-81.
 17. Silverglade, B. (1996) The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A public health milestone is now under attack. *J. Nutr. Educ.* **28**, 251-253.
 18. Sung, M. K. (2008) Proposed nutrient profile and up-coming tasks in evalu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and Forthcoming Changes to the Regulation of Health Claims in Korea. May 13, 2008. Seoul, Korea.
 19. Verhagen, H. and van den Berg, H. (2008) A simple visual model to compare existing nutrient profiling schemes. *Food Nutr. Res.* **52**, DOI: 10.3402/fnr.v52i0.1649.
 20. WHO (2004) Nutrition labels and health claims: the global regulatory environment by Dr Corinna Hawkesawkes. Geneva, Switzerland.
 21. Yamada, K., Sato-Mito, N., Nagata, J., and Umegaki, K. (2008) Health claim evidence requirements in Japan. *J. Nutr.* **138**, 1192S-1198S.
 2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8) 축산물의 표시기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6호.
 23. 농림부 (2000)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373호, 2000.12.11, 일부개정).
 24. 농림부 (2004)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478호, 2004. 8. 4, 일부개정).
 25. 농림부 (200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39호, 2006.10. 4, 일부개정).
 26. 박승용 (2007) 건강기능성 유가공품의 규격기준, 축산식품 규격기준 발전 심포지움, 축산식품규격기준위원회, 안양, 한국, pp. 19-29.
 27. 보건복지부 (200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66호, 2000. 8. 8, 일부개정).
 28. 보건복지부 (200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6727호, 2002. 8.26, 제정).
 29. 보건복지부 (200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0호, 2004. 1.31, 일부개정).
 30. 보건복지부 (200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06.12.29, 일부개정).
 31. 보건복지가족부 (2008a)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8941호, 2008. 3.21, 일부개정).
 32. 보건복지가족부 (2008b)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서.
 33. 이성기 (2008) 기능성 축산물의 연구 동향. 기능성축산물 연구회 창립 심포지엄-기능성축산물 및 축산식품의 제도 설정, 기능성축산물연구회, 수원, 한국, pp. 49-64.
 34. 이홍섭 (2008)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200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하나국환경농학회, 무주, 한국, pp. 66-72.
 35. 주나미, 윤지영, 김옥선, 고영주 (2005) 가공식품 표시기준 인식이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초록집,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서울, 한국, pp. 139.

(Received 2009.3.26/Revised 1st 2009.7.22, 2nd 2009.8.21/
Accepted 2009.8.22)